

# 군민 안전 최우선 제설 작업 총력

# 국도30호선 공사 주민 의견 반영

## 진안군

진안군은 지난 6일 대설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발 빠른 제설 작업으로 군민 안전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6일 밤부터 한파와 대설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지역에 최고 17cm 이상의 눈이 내렸으며 즉시 제설장비와 인력을 총 동원해 밤새 주요 도로의 눈을 치우는 작업을 진행했다.

읍·면에서는 트랙터와 제설기 8대를 동원하고 민간 제설단 88명이 활동하여 원활한 교통 통행을 위한 제설작업에 총력을 기울였다.

또한 전춘성 군수를 비롯한 전 공직자가 7일 이른 오전부터 솔선해 제설작업에 나섰다.

진안읍 내 주요 구역을 나눠 공직자와 주민들이 함께 버스정류장 주변, 이면도로 등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제설작업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진안군은 발 빠른 제설 작업으로 군민 안전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춘성 진안군수는 "군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제설작업에 행정력을 총동원하겠다"며 "영하의 기온이 지속되고 도로위의 눈이 얼어붙어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으므로 고갯길과 교차로에서 안전한 운행을 하고, 시설물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민 여러분 스스로 각별하게 주의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진안군 재난안전대책본부는 남은 겨울 기간에도 최강한파와 많은 눈이 올 것으로 예보가 되어 있는 만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설작업 철저 및 취약계층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 할 계획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 진안군, 성수-진안 간(2공구) 민원 해결 위한 관계자 협의회 가져

진안군은 지난 6일 국도30호선 성수-진안 간(2공구) 현장사무실에서 주민 민원 해결을 위한 관계자 협의회를 가졌다. 협의회는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진안군 관련부서, 감리단 등 공사 관련 7명이 참석한 가운데 올 4월 준공을 앞두고 주민들이 제기한 공사 관련 민원 건에 대한 최종 정리를 갖고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 시행하고 있는 국도 30호선 성수-진안 간(2공구) 도로 건설 공사 관련 제기된 주민 민원 사항은 ▲회전 교차로 개선 ▲화산(반덕, 은안)마을 진입로와 국도 접속부 횡단보도 위치 변경 및 중앙선 절선 ▲주천(신전)마을 진입로와 국도 접속부 중앙선 절선 ▲백운 농협 공공비축 미곡보관창고의 진입부가 부채도로로 되어 있어 미곡 운반 차량(25톤) 진입 불가 등이다.

이날 협의를 통해 ▲회전 교차로 축

소는 불가하나 교통안전시설(시선 유도등, 가로등, 발광표지판) 등 추가 설치 ▲화산(반덕, 은안)마을, 주천(신전)마을 진입로 교통안전을 위한 중앙선 절선 ▲백운 농협 공공비축 미곡보관창고 진입로(부채도로) 가각을 정리로 미곡 운반 차량 진입 가능하도록 개선하기로 확정했고 ▲소나무(장송) 식재에 대해서는 관련법규 및 도로교통관리공단, 경찰서의 의견을 받아 최종 조율하기로 결정했다.

정창현 건설교통과장은 "이번 협의회를 통해 주민 민원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되어 매우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민원 해결에 노력해 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게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국도30호선 성수-진안 간(2공구) 도로 공사는 지난 2016년에 착공하여 오는 4월 준공을 앞두고 있다.

/진안=우태만 기자

## 무주군, 국민취업지원제도 통한 구직촉진수당 접수

무주군은 올해부터 시행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따라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어 무주지역 많은 구직자들의 참여와 신청을 당부하고 나섰다.

7일 무주군에 따르면 무주군로컬 JOB센터 내 전주고용센터 무주출장소에서 4일부터 매주 수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한 구직촉진수당 신청·접수와 취업지원 서비스 상담을 펼치고 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2차 고용안전망으로, 고용보험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 안정을 위한 소득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저소득 구직자를 비롯해 청년 구직자, 경력단절 여성, 중장

년층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제이다.

전주고용센터는 고용노동부 지원 근거(15세~69세 구직자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50% 이하, 재산 3억원 이하)에 따라 대상자에게 구직촉진수당 300만원(50만원×6개월)을 지급한다.

무주군로컬JOB센터 내 전주고용센터 무주출장소 외에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온라인 홈페이지가 개설돼 있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황인홍 군수는 "올해도 코로나19의 상황과 겹쳐 취업에 더욱 어려움이 예상된다"면서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신속하게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있는 만큼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 장수군,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

장수군이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군은 지난 2012년부터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을 실시해오고 있다. 보증금이 없어 임대주택 임주를 포기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다. 지난해까지 총 236가구에 3억원의 임대보증금을 지원했다.

지원 대상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운데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전북개발공사가 공급하는 30년 이상 장기임대

주택 입주자다.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에 신규 입주하는 가구도 해당된다.

군은 이들 가구에 임대보증금 중 계약금을 제외한 보증금 잔액 범위 내에서 최대 2,000만원을 무이자로 지원할 예정이다.

무이자 지원기간은 2년이며 최대 2회까지 연장할 수 있다. 기간이 만료되면 임대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장수군청 민원과 주거복지팀(063-350-2297)로 문의하면 된다. /장수=고판호 기자

## 지역 소식통

### 진안농기센터, 딸기 고설수경재배 하우스 수확 한창

북극발 한파로 연일 강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진안에서 겨울철 대표 과일인 딸기가 먹을 직스럽고 빨갛게 익어가고 있다.

진안군농업기술센터(소장 고경식)는 지난해 새 기술 보급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딸기 고설수경재배 하우스에서 딸기가 한창 수확 중이라고 밝혔다.

군은 전주에 소재한 진안로컬푸드에 다양한 겨울철 신선채소를 납품하고 겨울철 새 소득작목을 발굴하기 위해서 지난해 '딸기 고설수경재배 시범사업' 2개소 0.4ha를 추진했다.

또한 농업기술센터는 로컬푸드 납품 농가를 대상으로 매월 1~2회 매장의 농산물을 수거해 농약잔류 검사를 통해 부적합 농산물의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고 있다. /진안=우태만 기자

### 무주군, '임산부 온라인 신고 서비스' 시행

무주군이 2021년부터 '임신육아종합포털'을 통해 '임산부 온라인 신고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임산부들은 보건요원 방문을 통해서만 가능했던 임산부 신고를 비대면 온라인을 통해서도 등록이 가능해졌다.

임신 육아종합포털(아이사랑)에 임산부로 등록할 경우 기존 지역보건요원보시시스템과 연계되는 시스템이다. 시스템에 등록을 하면 임산부에 대한 우울증 자가진단 검사와 결과 확인을 할 수 있으며, 결과에 따라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온라인 신고는 출산예정일이 기재된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를 첨부해야 하며 서비스 등록 진행 사항 확인은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에서 할 수 있다. 다만, 임산부를 위한 산전검사 15종과 풍진검사는 기존처럼 보건소 방문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아울러 임신 중 산전관리로 안전한 출산을 통해 건강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보건요원 방문을 통한 임산부 등록시 제공했던 철분제와 엽산제 등을 온라인 등록자들에게 택배로 전달할 계획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 무주군

무주군에 6일 오후 10시 대설주의보가 발효되면서 많은 눈이 내린 가운데 7일 새벽부터 제설작업에 긴급 나서는 등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는데 박차를 가했다.

무주군은 지난 6일 오후부터 새벽까지 6개 읍·면 평균 8cm의 눈이 내렸으며, 군에서는 관내 주요 간선도로 10개 노선(위임국도 1, 지방도 4, 군도 5, 무주읍 시내권)에 대한 신속한 제설로 안전을 우선 확보했다고 7일 밝혔다.

군은 덤프트럭 등 제설차량 21대와 트랙터 90여대를 투입한 것을 비롯해 연화칼슘 12톤, 소금 55톤을 뿌렸으며, 도로보수원과 운전원 등 38명으로 구성된 작업조를 편성해 새벽시간(4시 30분)을 이용해 제설작업에 나섰다.

무주군 500여명의 공직자들도 각 읍·면으로 제설작업에 긴급 투입했으며, 장비를 이용해 시가지권과 이면도로



의 눈을 치우는데 최선을 다했다. 앞서 군은 대설·한파 대비 긴급 대책회의를 통해 대설과 한파로 인한 주민불편을 신속하게 해결할 것을 다짐하고 신속한 제설대책으로 주민불편 최소화, 한파 취약계층 시설 점검 관리, 수도동파, 농업시설 피해예방 조치 등을 중점 점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한 박자 빠른 재난대비와 현장 밀착형 재난관리 행정을 강화하기 위해 주력하고 있다"며 "큰 도로부터 마을 안길까지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 제설작업에 최선을 다하고 주민들이 안전한 겨울을 나는데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눈 피해와 한파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면서 "선제적으로 한파 취약계층을 찾아서 난방이 되는지 꼭 확인해 보고 고장나거나 작동이 되지 않는 곳이 있다면 보수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할 것"을 당부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 장수군

장수군이 지난 6일부터 내린 폭설과 한파에 대비해 민·관 합동으로 신속한 제설작업 등을 추진해 주민 피해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7일 장수군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최고 14.2cm의 폭설이 내린 가운데 군은 제설장비 8대(15톤 덤프트

트 2)를 동원해 장수읍을 비롯한 시가지 교통 혼잡 및 주민 통행불편 해소를 위한 제설작업을 적극적으로 펼쳤다.

현재 장수군은 오는 3월 15일까지 친환경제설제, 연화칼슘 등 제설장재 2,400여톤을 확보했으며, 제설함 67개소 설치, 상습결빙구간 모래주머니 2만여개 비치, 임대차량 4대, 덤프트

럭 1대, 다목적차량 등을 확보해 겨울철 폭설에 대비하고 재난사고 없는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폭설, 결빙으로 인한 사고와 주민피해 최소화를 위해 가용 장비와 인력을 총 동원해 제설작업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주민들도 내 집 앞 눈 치우기 등에 동참해 인명 및 재산 피해에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장수=고판호 기자

#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전주매일 금연캠페인

